

전남도, 도의회에 “행정통합 동의해달라” 공식 요청

김지사, 의원총회서 통합 당위성 강조
“얼마나 빨리 특별법 만드느냐가 관건”
도의회, 대통령 간담회 후 입장 정리

전남도가 도의회에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동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도의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갖고 행정통합 필요성, 추진기구 발족, 특별법안 발의 등 로드맵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김영록 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실·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사는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역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직면해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이어 김지사는 “이재명 정부는 행정 통합에 추진하게 됐다”고 행정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산 농수산식품 수출액 7억9천만달러 ‘역대 최대’

작년 1-11월 기준…1년전 대비 13% ↑

김 전체 50% 차지…일본·미국·중국順

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김, 쌀, 과자류, 오리털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확대되고 일본·미국·중국 등 기존 주력 시장과 함께 베트남·태국 등 신남방 시장에서 도수출이 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9천375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6.5%)의 약 2배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액이 1년 전 대비 18.8% 증가한 9천577만달러로 전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의 49.9%를 차지했다. 쌀은 5천781만달러로 62.7% 늘었고 과자류는 105.0%, 키위는 1천955% 각각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은 일본 1억9천527만달러, 미국 1억 5천488만달러, 중국 1억7천558만달러 순이다. 중국 수출액 가운데 김 비중은 37.0%, 수출액은 4천883만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64.8% 증가했다.

신흥 시장인 동남아에서도 성과가 뚜렷했다. 태국 수출액은 1천366만달러로 36.4% 증가했고, 이 가운데 김 수출은 72.1% 늘었다. 필리핀 김 수출은 257.5% 급증했으며 인도네시아 오리털 수

출도 72.0% 증가했다. 유럽 지역 수출도 24.3% 확대됐다. 김과 커피 조제품 수출이 늘며 독일 604만달러, 폴란드 1천 391만달러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목포가 1억7천688만달러로 전남 전체 수출액 21%를 차지했다. 이어 나주 1억3천258만달러, 고흥 1억848만달러, 신안 1억100만달러 순이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김과 쌀 등 전략 품목의 경쟁력과 수출시장 다양화 노력이 실적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10억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충, 신흥국 마케팅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박차’

전남도·한전KDN·해남군 등 업무협약

전남도는 8일 한전KDN,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에너지 특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박상형 한전KDN 사장, 명현관 해남군수, 김대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AI·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생산·소비·계통·저장(ESS) 등 주요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AI 분석·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도내 에너지 AI 서비스 개발, 신산업 실증, 데이터 기반 기업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한전KDN과 협업해 에너지·데이터센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구축, 실증사업 퍼키지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할 AI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에너지 ICT 데이터 분야의 기술·운영 역량을 갖춘 한전KDN이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시원 기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이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062)222-1095, 1096

광고 제2026-01호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공고

1. 매각대상 물건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m²) 최저임찰금액
1. 전북 군산시 대 4,688 314,096,000원
개자동 1082-2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26. 1. 19 10:00 ~ 2026. 1. 21. 17:00
나. 입찰장소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익비드
(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26. 1. 22 10:00
라. 개찰장소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익비드
(http://www.onbid.co.kr)

3.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조합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62-368-7711)
2026년 1월 9일
광주광역시 산림조합장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 컴퓨터 ◉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 대 ◉ 판매 ◉ A/S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김지사, 의원총회서 통합 당위성 강조
“얼마나 빨리 특별법 만드느냐가 관건”
도의회, 대통령 간담회 후 입장 정리

전남도가 도의회에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동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도의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갖고 행정통합 필요성, 추진기구 발족, 특별법안 발의 등 로드맵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김영록 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실·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사는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

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역

시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이 가장 먼저 해낸다면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끌어낼 수 있다”고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도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시·도 행정통합 기본방향에 반영할 것”이라며 “1~2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 이양될 것”이라며 “올해 가을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농협중앙회와 같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지사는 “통합 기본 골격을 빨리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앞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민·관 합동 실무 기구로 두고, 500명 규모

의 자문기구인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기본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도의회에 추가 보고하고 해당 안으로 성립되면 시·도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는 절차도 소개했다.

무엇보다 김지사는 “관건은 얼마나 빨리 특별법을 만드느냐”라며 “발의 목표는 1월 16일쯤이고 민주당에서 2월 말까지는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김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의원총회는 김태균 의장이 의원들과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간담회 내용을 본 뒤 오는 12일 2차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작년 1-11월 기준…1년전 대비 13% ↑

김 전체 50% 차지…일본·미국·중국順

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김, 쌀, 과자류, 오리털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확대되고 일본·미국·중국 등 기존 주력 시장과 함께 베트남·태국 등 신남방 시장에서 도수출이 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7억9천375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6.5%)의 약 2배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액이 1년 전 대비 18.8% 증가한 9천577만달러로 전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의 49.9%를 차지했다. 쌀은 5천781만달러로 62.7% 늘었고 과자류는 105.0%, 키위는 1천955% 각각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은 일본 1억9천527만달러, 미국 1억 5천488만달러, 중국 1억7천558만달러 순이다. 중국 수출액 가운데 김 비중은 37.0%, 수출액은 4천883만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64.8% 증가했다.

신흥 시장인 동남아에서도 성과가 뚜렷했다. 태국 수출액은 1천366만달러로 36.4% 증가했고, 이 가운데 김 수출은 72.1% 늘었다. 필리핀 김 수출은 257.5% 급증했으며 인도네시아 오리털 수

출도 72.0% 증가했다. 유럽 지역 수출도 24.3% 확대됐다. 김과 커피 조제품 수출이 늘며 독일 604만달러, 폴란드 1천 391만달러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목포가 1억7천688만달러로 전남 전체 수출액 21%를 차지했다. 이어 나주 1억3천258만달러, 고흥 1억848만달러, 신안 1억100만달러 순이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김과 쌀 등 전략 품목의 경쟁력과 수출시장 다양화 노력이 실적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10억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충, 신흥국 마